

論 叢

우리나라시멘트工業의 經營比較

韓國銀行調查部 金 泰 榮

< 內 容 >

- 1. 序 言
- 2. 財務構成
  - (1) 財務狀態
  - (2) 財務比率
- 3. 收益狀況
  - (1) 売出額과 純利益
  - (2) 資本利益率
- 4. 資金의 需要와 調達
  - (1) 資金의 需要
  - (2) 資金의 調達
- 5. 結 言

1. 序 言

溫故知新이란 옛말이 있듯이 企業經營에 있어서도 過去実績을 分析 吟味함으로써만 合理的인 經營計劃을 樹立할 수 있으며 또 円滑한 企業經營을 可期케 하는 것이다.

普通 經營比較 또는 經營分析이라 함은 企業의 諸部門을 數期間에 걸쳐 또는 同種의 他企業과 比較해 보므로써 自企業의 經營欠陥을 發見 除去하는 手段을 말한다.

過當競争으로 인한 販売Cartel 形成問題까지 擡頭하게끔된 現今에 있어선 이러한 經營比較의 必要性을 切感한다 하겠다. 앞에 서도 말한바와 같이 經營比較라 함은 企業 全般에 걸쳐서 体系的인 分析을 施圖하여야 하겠으나 本稿에 있어서는 分析에 必要한 諸資料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財務諸表(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製造原価報告書)를 中心으로한 簡易分析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하면 既存의 大韓洋灰, 東洋 Cement와 함께 新設의 여러企業체들을 網羅한 것이어야 하겠으나 本稿에서 는 前記한 兩会社만에 限定하였다. 이는 兩社를 除外한 餘他の

企業들은 1964년에 와서야 正常的인 營業活動을 開始한 때문이다.

한편 1961年度는 分析資料가 如意치 못하여 部分的으로는 1962~1963兩年度만을 分析할 수 밖에 없었다는 事實을 附記하여 둔다.

## 2. 財務構成

### (1) 財務狀態

財務規模(總資本 또는 總資產)는 62年度の 2,537,223千원에 서 '63年度の 2,667,687千원으로 增大된바 이를 資產構成, 資本構成, 資本配分の 側面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資產構成

均衡있는 企業運營을 爲해서는 企業의 根幹이되는 固定資產과 이 固定資產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게 하는 潤滑油로서의 流動資產의 構成이 調和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은 流動資產과 固定資產과의 比重이 '61年度の 24.80% : 75.2%에서 '62年度에는 34.26% : 65.51%로 '63年度에는 33.25% : 66.27%로 여전히 固定資產의 比重이 높다. 이는 業種特有的 性質을 反映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61年の 固定資產 75.20%는 企 業目的이 마치 施設投資에 있다는 印象을 줄만큼 過度히 높다. 그러나 '62年, '63년에 와서는 固定資產의 投資는 어느程度 鈍 化되었고 企業의 流動性 確保에 크게 努力한 痕跡을 찾아 볼수 있다.

資產構成의 推移

	1961	1962	1963
流動資產	24.80%	34.26%	33.25%
固定資產	75.20	65.51	66.27
移延計定	-	0.23	0.48
資產合計	100.00	100.00	100.00

資料： 産銀調査部刊，韓國의 産業

洋灰工業協會刊，洋灰工業第4輯 大韓洋灰 및 東洋시멘트 Co. 財務諸表

② 資本構成

他人資本(負債)이 全無한 때가 가장 理想的이라 하겠으나 現實的으로 그러한 狀態를 期待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또 他人資本이 企業에 들어와서 安全性을 破壞하는 作用만을 하는것이 아니므로 다만 企業의 健全財政을 害치지 않는 範圍內에선 이를 調達하여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은 總資本中에서 他人資本이 占하는 比重이 '61年度의 47.50%에서 '62年度에는 68.17%로 커졌으며 '63년에는 62.68%로 주춤하였다.

그러나 三個年을 通하여 볼때 他人資本이 平均 50%以上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단 警戒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他人資本의 構成內容을 보면 다행히도 他人資本中 安定性있는 固定負債가 約30%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資本構成의 推移

	1961	1962	1963
流動負債	28.50%	34.47%	34.13%
固定負債	19.00	34.70	28.54
負債總計	47.50	68.17	62.68
自己資本	32.50	31.83	37.32
負債와資本合計	100.00	100.00	100.00

資料： 前掲資料에 依拠

③ 資本配分

投下된 資本의 回收가 더딘 固定資產은 全部를 自己資本만으로

調達하는 것이 企業經營의 鉄則이기는 하나 巨大한 施設을 必要로 하는 業種에 있어서는 無理라 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시멘트工業과 같은 特殊한 業種에 있어서는 最少限 長期資本(自己資本+固定負債)의 範圍內에서 固定資産이 調達되어 있다면 그것으로서 滿足할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은 大規模의 固定資産을 調達하는데 있어서 自己資本만으로는 太不足하였음은 勿論 長期資本으로서도 適正水準을 오트락 내리락하고 있는 實情이다. 卽 '61年度에는 固定資産 75.20%에 對하여 自己資本은 52.50%이고 長期資本은 71.50%이며 '62年度에는 固定資産 65.51%에 對하여 自己資本 31.83% 長期資本 65.53%로 겨우 適正水準에 到達했다. 그러나 다시금 事態는 惡化되어 '63年度에는 固定資産 66.27%에 對하여 自己資本 37.32% 長期資本 65.86%를 나타내고 있다.

資本配分の 推移

	1961	1962	1963
固定資産	75.20%	65.51%	66.27%
長期資本	71.50	65.53	65.86
自己資本	52.50	31.83	37.32
固定負債	19.00	33.70	28.54

資料： 前掲資料에 依拠

(2) 財務比率

① 負債比率

企業資本의 一部를 構成하는 他人資本은 一般的으로 自己資本을 超過하지 않는 均衡點 卽 負債比率 100%以下가 標準狀態인데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은 '61年の 90.47%를 除外하고는 '62年이 214.12%, '63年이 167.91%를 나타내고 있어 標準線에 到達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流動負債比率마저 '61年の

54.29%를 除外하고는 滿足할만한 狀態가 아니다. 이로서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은 資本過少의 現狀이 뚜렷하다 하겠다.

② 固定比率

企業活動을 円滑하게 遂行하려면 最少限 設備投資만은 自己資本으로 調達할 必要가 있으며 그러기 爲해서는 固定比率를 100%以下로 維持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은 1961년에는 210.00%, 1962년에는 205.84%, 1963년에는 177.56%로서 標準線을 훨씬 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改善의 傾向이 뚜렷하다.

한편 固定長期適合率은 標準線인 100%線에 接近하고 있으며 巨大한 固定的 施設을 必要로하는 業種의 特質을 勘案한다면 크게 우려할 程度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③ 流動比率

企業資本中 條件付資本인 他人資本에 對해서 充分한 支払準備를 갖추려면 一般的으로 流動負債의 二倍程度의 流動資産을 保有하고 있어야 하므로 流動比率는 200%以上을 維持하도록 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은 三個年을 通하여 다같이 標準線의 半에도 未及하는 不良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即 流動比率가 1961년에는 90.00%, 1962년에는 99.38%, 1963년에는 97.42%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流動比率의 補助比率로서 採用되는 當座比率는

主要財務比率의 推移

	1961	1962	1963
負債比率	90.47%	214.12%	167.91%
流動負債比率	54.29	108.32	91.43
固定比率	210.00	205.84	177.56
固定長期適合率	119.00	99.97	100.62
流動比率	90.00	99.38	97.42
當座比率	9.00	30.90	24.64

1961년에는 9.00%, 1962년에는 30.90%, 1963년에는 24.64%로 標準線에 훨씬 未及하다. 이로서 볼때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의 支払能力은 매우 不良한 狀態라고 할 수 있다.

### 3. 收益狀況

#### (1) 売出額과 純利益

##### ① 売出額

企業의 發展과 活潑한 營業活動을 前提로 하는한 企業의 売出額을 增大시켜야 한다는것이 하나의 常識처럼 되어있으며 더욱이 1963年까지는 大韓洋灰와 東洋시멘트 兩社가 우리나라에서 需要되고 있는 시멘트 全量을 供給独占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63年の 売出額이 1962年에 比하여 減少되었다는 것은 意外的 일이라 하겠다. 即 1962年の 売出額을 100으로 볼때 1963年の 売出額이 92밖에 減되었다는 것은 企業이 販売에 無心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② 純利益

企業의 最終成果는 純利益에 集約적으로 表示되는데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營利企業에 있어서는 利益의 增大에 不斷한 努力을 기울이게 됨이 普通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은 1962年の 純利益을 100으로 볼때 1963年은 103.90이었다. 이는 純利益이 겨우 3.90% 增大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바 売出額이 減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조금이나마 純利益이 增大할 수 있었던 것은 企業이 그만큼 製造活動이나 一般管理와 販売部門에서 合理化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売出額과 純利益增減의 推移

	1961	1962	1963
売 出 額	-	100.00%	92.00%
純 利 益	-	100.00	103.90

#### (2) 資本利益率

##### ① 總資本利益率

收益狀況을 總體的으로 判断하는 指標인 總資本利益率을 보면 1961년에는 14.80%로서 比較的 高水準을 나타내었으나 1962年

에 와서는 9.12%로서 훨씬 낮아졌다. 이러한 傾向은 1963年에도 繼續되어 9.01%로서 三個年中 最低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63년에는 1962년에 比하여 純利益의 增加率(3.09%)이 總資本의 增加率(5.14%)에 未及한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總資本利益率을 높게 維持하기 爲하여서는 資本規模의 擴大보다는 売出額 增大와 經營合理化에 依한 費用節減으로 純利益自体를 增加시켜야 하는 것이다.

總資本利益率의 推移

	1961	1962	1963
總資本利益率	14.80%	9.12%	9.01%

② 売出額純利益率과 總資本回轉率

總資本利益率을 構成하는 二要素 即 收益關聯指標(總資本利益 = 売出額純利益率 × 總資本回轉)인 売出額純利益率과 總資本回轉率을 보면 1961년에는 売出額純利益率이 20.00%인데 反하여 總資本回轉率이 0.74回轉을 나타내었으며 1962년에는 売出額純利益率이 12.02% 總資本回轉率은 0.76回轉으로 1963년에 比해서 利幅(売出額純利益率)과 資本利用度(資本回轉率)가 함께 低率을 보였다. 한편 1963년에는 1962년에 比해서 利幅은 14.19%로 多少 高率을 나타내었으나 이와 反對로 資本利用度는 0.63回轉으로 鈍化되어 結局 總資本利益率의 低下를 不免하게 된 것이다.

売出額純利益과 總資本回轉率의 推移

	1961	1962	1963
売出額純利益率	20.00%	12.02%	14.19%
總資本回轉率	0.74回轉	0.76回轉	0.63回轉

③ 収支比率

總收益과 總費用을 对照하므로써 収益性의 安定度를 測定하는

収支比率을 보면 1962年の 88.11%에 対하여 1963년에는 86.2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總收益에 対応하는 總費用에 對한 管理 即 費用節減에 따른 収益性的 安定比率 期한데 緣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売出額의 減少와 資本의 增加로 말미아마 總資本利益率은 低下하지 않을수 밖에 없었다.

總費用對總收益比率

1961	1962	1963
-	88.11%	86.22%
-	11.89	13.78

損益分岐点

損益分岐点은 한 期間의 売出額이 그以上에 오르면 利益이 發生하고 그 以下로 떨어지면 損失이 發生하는 売出額이므로 이 採算点 (또는 収支均衡点)은 낮을수록 収益力이 크며 一般的으로 売出額에 對한 損益分岐点의 位置 即 損益分岐点率 (損益分岐点의 売出額 ÷ 売出額)은 75%以下가 安定狀態를 나타내는 基準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을 다음의 原価資料에 의해서 費用을 分解 (個別費用法)하고 損益分岐点과 損益分岐点率을 算出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費用分解에 있어서 (A) 直接勞務費 全部를 變動費에 計上하는 境遇와 (B) 直接勞務費의 一部 (80%)를 固定費에 計上하는 境遇로 나누어 算出하기로 한다.

한편 損益分岐点은 公式  $[F \div (1 - \frac{V}{S})]$ 에 의하여 또는 圖表에 의하여 算出하는 方法이 있는데 本稿에서는 兩者를 모두 利用하였다.



区 分 項 目	1962				1963			
	(A) 直接勞務 費를全部變動 費에計上		(B) 直接勞務 費의一部를固 定費에計上		(A) 直接勞務 費를全部變動 費에計上		(B) 直接勞務費 의一部를固定費에 計上	
	千 圓	%	千 圓	%	千 圓	%	千 圓	%
1. 總費用	1,709,388	100.0	1,709,388	100.0	1,530,668	100.0	1,530,668	100.0
2. 固定費	783,178	45.8	895,332	52.4	706,208	46.1	788,094	51.5
3. 變動費	926,210	54.2	814,056	47.6	825,460	53.9	742,574	48.5
4. 売出額	1,925,339		1,925,338		1,694,274		1,694,274	

(A) 의 境遇

< 1962年 >

$$\text{損益分岐点} = \frac{783,178}{1-0.481} = 1,509,013 \text{ 千圓}$$

$$\text{損益分岐点率} = \frac{1,509,013}{1,923,339} \times 100 = 78.4\%$$

< 1963年 >

$$\text{損益分岐点} = \frac{706,208}{1-0.463} = 1,314,756 \text{ 千圓}$$

$$\text{損益分岐点率} = \frac{1,314,756}{1,694,274} \times 100 = 77.6\%$$

(B) 의 境遇

< 1962年 >

$$\text{損益分岐点} = \frac{895,332}{1-0.423} = 1,551,702 \text{ 千圓}$$

$$\text{損益分岐点率} = \frac{1,551,702}{1,925,339} \times 100 = 80.61\%$$

< 1963年 >

$$\text{損益分岐点} = \frac{788,094}{1-0.415} = 1,346,947 \text{ 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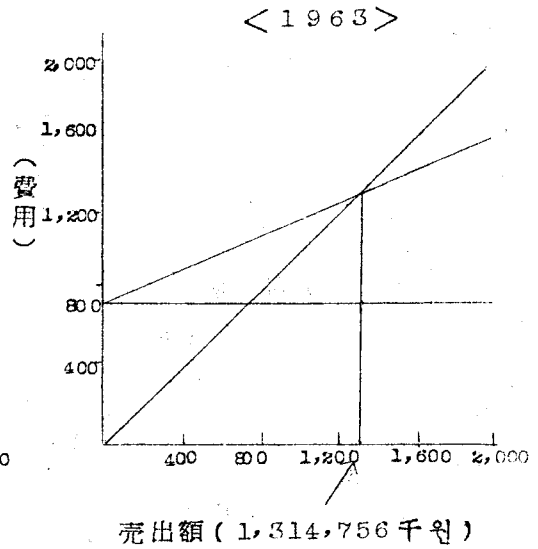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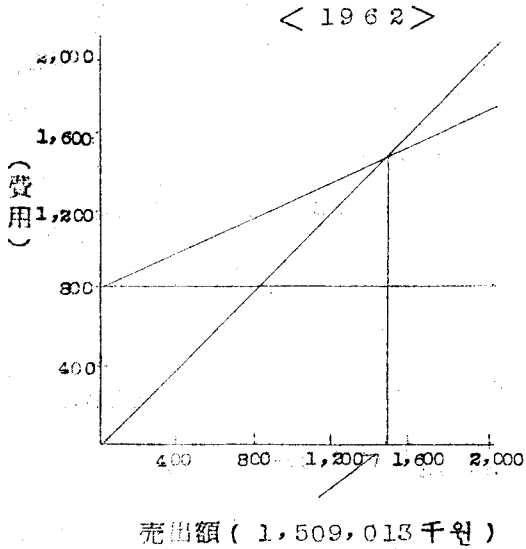
$$\text{損益分岐点率} = \frac{1,346,947}{1,694,274} \times 100 = 79.5\%$$

앞에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損益分岐点率은 一般的인 基準이 75% (以下) 인데 對하여 우리나라는 1962年 1963年 모두 標準을 넘는 不安定한 狀態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63年은 1962年에 比하여 多少 改善된 것을 볼수 있으니 大体로 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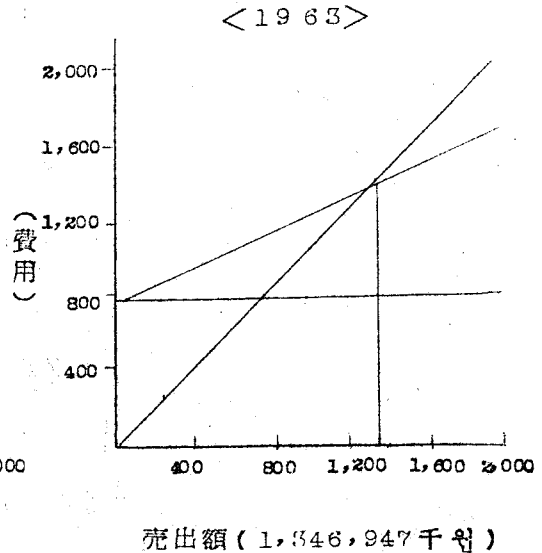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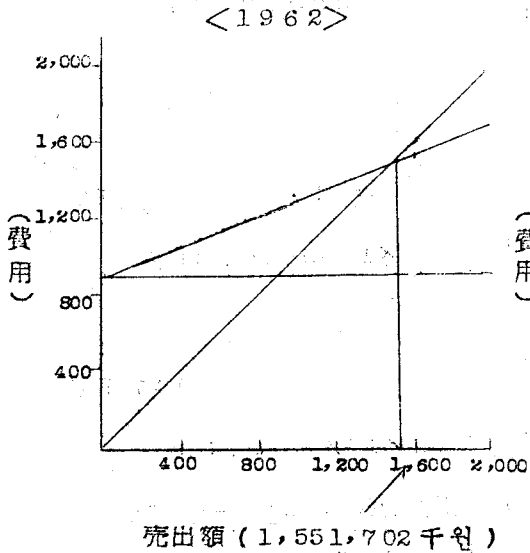
어느 정도의 안전선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前掲한 資料에 의한 利益圖表를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A)의 경우



(B)의 경우



#### 4. 資金의 需要와 調達

資金의 運用과 源泉表에 依한 資金의 需要狀況을 資金需要(運用)와 資金(源泉)의 兩面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資金의 需要

資金의 需要狀況이라 함은 投資比率과 同義語로 解釋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은 1962년에 固定資産에 對한 投資比率이 74.50% 在庫資産에 對한 投資比率은 11.77%이며 売出債權은 4.10%를 示顯하고 있다. 이로서 볼때 固定資産에 對한 投資比率이 높은것은 業種特有的 事情에 基因하는 것이기는 하나 固定資産投資에 따르는 諸般管理를 徹底히 하지 않는한 곧 固定資産 過大投資라는 現狀이 나타나게될 우려가 있다. 한편 1963年에도 固定資産에 對한 投資比率은 73.35%로서 依然強勢을 나타내고 있다. 在庫資産에 對한 投資는 12.06%로 1962年과 비슷하있으나 売出債權은 2.55%로 多少 低下되었다.

資金의 需要狀況

	( 1962 )	( 1963 )
固 定 資 産	74.50%	73.35%
有形固定資産	71.83	70.24
無形固定資産	0.58	1.10
投 資	2.09	2.01
在 庫 資 産	11.77	12.06
製 品	0.48	0.11
原 村 料	4.01	3.85
其 他	7.28	8.10
売 出 債 權	4.10	2.55
其 他	10.63	12.04
合 計	100.00	100.00

(2) 資金의 調達

企業이 資本壓迫에서 벗어나 円滑한 營業活動의 遂行을 爲하여서는 他人資本을 主軸으로 하는 外部資金を 避하고 内部資金強化에 依한 自己金融의 充實化를 期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은 1962년에 内部資金 11.26%에 對하여 外部資金 88.74%로서 外部資金이 壓到的이었으며 이러한 傾向은 더욱 惡化되어 1963년에 와는 内部資金이 5.26%로 低落하는 反面 外部資金은 94.74%로 增大되어 마치 資金全部가 外部資金으로 調達되었다는 感마저 든다.

固定資産에 對한 投資比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對한 充分한 減價償却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또 各種 剩餘金의 内部留保에도 積極 힘을내 自己金融을 強化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1962년의 88.74%에서 1963년의 94.74%로 惡化된바 있는 外部資金의 主要內容을 보면 短期借入金이 16.89%에서 17.77%로 增大하였고 長期借入金은 19.40%에서 18.54%로 減少하였다.

이는 可級的 短期負債를 避하고 長期負債를 挾해야 한다는 原則에 多少어긋난 結果로 나타났다.

資 金 調 達 狀 況

	1962	1963
内部資金	11.26%	5.26%
内部留保	5.29	0.33
減價償却	5.97	4.93
外部資金	88.74	94.74
短期借入金	16.89	17.77
長期借入金	19.40	18.54
支払債務	4.57	5.35
株式	16.05	26.59
其他	31.83	26.59
合  計	100.00	100.00

## 5. 結 論

以上 살펴본바에 依하면 우리나라의 시멘트工業은 業種特有한 事情에 基因한다고는 하나 自力에 넘는 巨大한 固定資産을 所有하고 이에 巨額의 他人資本調達が 不可避하였다. 따라서 資本構成에 있어서도 他人資本에 對한 依存도가 클뿐만 아니라 그에 對한 支払準備資産을 充分히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企業의 財務構造의 安全性은 한마디로 말하여 不健全하다 할 수 있다.

한편 収益性은 現在로 보아 良好한 狀態(우리나라 製造業平均 總資本利益率이 1961年度에 5.31%, 1962年度에 9.09%) 이기는 하나 시멘트 需要量 全部를 兩大會社가 独占供給할 수 있었다는 經營外的인 好條件을 勘案한다면 將來를 樂觀하기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5個年 經濟計劃의 一環으로 數個의 시멘트工場 新設로 製品의 販売面에 諸不利點이 있을것을 豫想한다면 企業內部的 經營合理化가 時急하다 하겠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企業이 資本圧迫에서 벗어나 円滑한 經營活動을 遂行하려면 内部資金強化로 純利益이 利子나 配當等으로 企業外에 放出되는 것을 極力 避하여야 하는데 시멘트工業도 우리나라 企業의 資金調達が 外部資金에 偏重해 있다는 例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改善할 餘地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이 当面한 課題로서는 안으로는 安全性 構築을 위한 資本構成의 是正과 製造 및 管理部門의 合理化를 期하고 밖으로는 売出額增大에 크게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